



[라이프]
편의점
플라스틱 줄이기
기후위기 극복 앞장

L1

Life

[인터뷰]
“국민고기 ‘한우’
돼지고기 가격으로
즐기세요”



L2



불확실성 시대… 달라진 재테크로 ‘위기 속 기회’ 잡아라

고금리 영향에 자산 ‘롤러코스터’
부동산 투자 줄고, 예·적금 늘어
주식투자, 부동산 세테크 전략 제시

“불황은 언제든 피할 수 없다.”

위렌 버핏(92)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뉴욕타임즈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자본주의 속성상 불황은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만 버핏은 이와 함께 “불황이 기회를 만든다”며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고, 모두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껴야 한다”고 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대다.

지난해 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 4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섰다. 한국은행도 금리 역전차를 막기 위해 금리인상에 속도를 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0.75%에서 1년 6개월만에 3.5%까지 뛰었다. 최단기로 급등락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여 년 만이다.

1년 만에 갑작스럽게 고금리 상황이 펼쳐지면서 자산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 등으로 주식과 채권값이 급락했다. 금융시스템 불안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주의단계(임계치8)에 진입했다.

부동산시장도 고금리에 투자수요가 줄어들며, 거래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도 급격히 늘었다.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뭉칫돈은 은행권의 예·적금 계좌로 몰렸다. 지난해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잔액은 818조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63조원 늘었다.

이제는 어디에 탐욕을 부릴 지 결정해야 할 때다.

다만 올해 경기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주식도 선뜻 매수하기 어렵다. 더구나 금리상승에 따른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기업 부도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여파로 국내 증시는 또 다시 휘청였다.

부동산시장은 어디가 바다인지 몰라 투자시기를 가능하기 어렵다. 미분양 주택 또한 늘고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를 주제로 22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을 시작으로, 염승환 이베스트투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40~14:00
14:00~14:20	축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14:20~15:10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20~15:10	기조강연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15:10~15:50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15:50~16:30	강연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사 :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16:30~17:1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 : 은퇴준비와 재테크 전략

자증권 이사가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발표한다.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는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특히 부동산 재건축 주택 투자와 부동산 증여를 조명해, 절세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은퇴준비와 재테크전략’으로 퇴직 후 노후생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평생소득 대책을 제시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금융불안 확대… 새로운 수혜종목은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증시염탐정’, ‘염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이번 재테크 포럼에서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새로운 주식투자 전략을 공유한다.

염승환 이사는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경제환경 변화와 주식투자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스위스 2대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 부실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이 확대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할 계획이다.

염승환 이사는 이번 포럼에서 ▲2023년 경제 전망 ▲94년의 향기가 나는 시장 ▲증시 전망 및 투자전략 등 소주제를 놓고 관련 수혜 종목을 다룰 예정이다.

또 올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정책 등을 분석하고 글로벌 경제를 전망한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

-온라인 주식 영업, 교육 및 홍보 담당

-KBS, MBC, SBS, YTN, 연합뉴스TV 등 고정패널 출연 중

-POSCO, LG전자, 포항공대, 한양대, 고려대, 국회 등 강연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부동산 시장 트렌드 맞춘 ‘세테크’ 전략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는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부동산 규제완화에 발맞춘 절세 비법을 공유한다.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먹구름이 끼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택 구입 의지가 있는 시민 가운데 40%가 현 시세 보다 80% 아래에서 매매를 희망하고 있다. ‘시세 이상에 구입하겠다’는 답변은 4.73%에 불과하다.

거래절벽 또한 역대 최악이라는 분석이다. 고금리, 저성장 등 겹악재에 월세 선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호지영 세무사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딱 맞춘 ‘세테크’ 전략을 귀띔할 예정이다.

호지영 세무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올해 주목할 만한 부동산 세제 개정사항을 쭉 짚어준다.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는 방법도 제시한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는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줄 예정이다. 증여, 비과세 요건 등 평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공유할 전망이다.

-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전 대신증권 WM추진부

-전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은퇴 후 전략적 자금운영 방법 제시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은퇴 후 전략적인 자금운영 방식을 소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6세를 나타내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장수 시대를 대비해 은퇴 후 자금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은퇴 준비 전문가로 통하는 김동엽 본부장은 포럼에서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계속 내야 하나요?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은 은퇴 후 노후 대비 방법을 제시한다.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퇴직연금시장에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어려운 내용과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다.

최근에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가입여부와 대상여부 확인 방법도 같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금 수령 후 관리 방법과 퇴직연금 세금 납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도 제시한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 본부장(상무)

-현 한국FP협회 이사

-건국대 부동산 경영관리 석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버스티비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토트넘, 이번주 내 콘테 감독과 결별”

▲ 손흥민 “클린스만 감독 흔들지 말고 뜰뜰 뭉쳐야”

/사진 뉴시스

▲ 프로농구 캐롯 운영사 데이원, 캐롯순보와 스폰서십 끝

▲ 우승에 목마른 트라우트 vs 오타니, 22일에 한 명만 웃는다



▲ 새 전용버스 받은 클린스만호… “힘차게 달리겠다”

▲ “성에 차지 않아”… 이승엽 감독, 계속되는 ‘유격수 고민’

/사진 뉴시스